

고즈넉한 가을밤 떠나는 시간여행

‘전주문화재야행’ 13~14일 전라감영·경기전서 18개 공연·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롭게 개최

전주시는 전주페스타 2023 축제시즌의 일환으로 13~14일 전라감영과 경기전에서 ‘풍채지향 왕의 공원을 거닐다’를 주제로 ‘전주문화재야행’이 펼쳐질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전주문화재야행은 고즈넉한 밤 풍경을 감상하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것으로, 지난 5월 1차 밤야행에서는 10만여 명의 참여가 있었다.

이번 가을 야행에서는 18개의 특별한 공연과 체험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야행에서는 기존 전주한옥마을 곳곳에 배치됐던 프로그램들이 전라감영으로 자리를 옮겨 집중 배치될 예정이어서 관람객에게 보다 밀도 높은 축제의 추억을 선사하게 된다. 전주한옥마을 경기전에서는 전주

문화재야행의 대표 프로그램인 ‘경기전 쉼비실록’과 더불어 차회, 떡만들기, 전통주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한편 전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주페스타 2023 기간에 열리는 이번 전주문화재야행이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전주의 맛, 멋, 열정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문화재야행은 지난 2018년 문화재청이 선정한 최우수야행에 등극하고 한국관광공사가 ‘꼭 가봐야 할 야간관광 100선’에 포함돼 있다. /김옥기 기자



2023 전주문화재야행 포스터

10월은 동물보호법 위반사항 집중단속의 달

전주시, 반려견 미등록·목줄 미착용 등 집중단속 실시

전주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10월 한 달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사항 집중단속의 달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주시에 반려견 등의 개체수 5만을 넘는 가운데 개물림 사고와 소음 발생, 유실·유기동물 발생 등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번 동물보호법 집중 단속기간 동안 반려인이 주로 출입하는 주요 산책로와 공원 등을 찾아가 동물 미등록과 산책 시 목줄 미착용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주·야간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인근 지구대의 협조를 바탕으로 공동으로 단속하는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려견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활민원을 적극 차단해 반려인과 비반려

인이 모두 행복한 도시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시는 그동안 지원조건이 농촌지역에 국한됐던 실외사육견(마당견) 중성화 사업을 전주시 전역으로 확대해 무분별한 개체 번식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실외사육견 중성화 사업은 마당 등 실외에 묶어 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 놓고 기르는 개에 대해 중성화 수술을 지원해줌으로써 유실·유기동물 발생 및 무분별한 개체 번식 예방하는 사업이다. 김종성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반려동물로 인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반려견 등록 및 산책 시 목줄 착용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옥기 기자

“텃밭 가꾸며 농업 소중함·수확 즐거움 느껴요”

전주시, 총 1억9600만원 투입 23개 초·중학교에 학교 텃밭 조성



전주시는 전주시 23개 초·중학교 대상으로 도시농업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농업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대정초등학교 학교 텃밭 활동 모습)

전주시는 올해 총 1억9,600만원을 투입해 전주시 23개 초·중학교 대상으로 도시농업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농업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이 프로그램은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 농업에 대한 경험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나아가 학교 구성원 또는 그 밖의 사회 구성원 간의 건강한 상호작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는 전주덕일중학교와 완산중학교 중학생 43명을 대상으로 ‘중학교 자유학기제 대응 학교 텃밭 활용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추진해 수업 시간 중 15회에 걸쳐 농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시는 전주대정초등학교 외 20개 초등학교를 선정해 학교 환경에 맞춰 상자 텃밭과 유티지를 활용한 농업체험 공간 등을 조성하고, 학생들이 직접 농작물을 심고 가꾸며 관찰일지를 작

성해보며 직접 수확한 수확물을 먹어보는 체험까지 갖도록 시도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한 학생들은 자연과 생명, 농촌, 농업의 소중함을 경험하고 수확하는 즐거움을 통해 자존감을 기르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농업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학교 3학년 학생(완산중학교 3학년)은 “텃밭이라는 게 지금까지 도시에서 살면서 접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내가 직접 작물을 심고 수확하고 이용하는 것이 뿌듯하고 재미있다”면서 “텃밭 활동 시간 자체가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다혜 학생(완산중 1학년)도 “텃밭 활동을 하기 전에는 농업에 아무런 흥미가 없었는데, 참여하고 난 이후에는 식물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면서 “앞으로 내 텃밭을 더 열심히 가꾸고 키우고 싶다”고 말했다. 김종성 전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학생들이 정서가 안정되고 생명 존중을 배울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에 학교 텃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농기센터, 시민 대상 저탄소 식생활 교육 운영

전주시가 시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유도하고, 지역농산물 이용과 지역농업의 가치를 알리는 식생활 교육에 나선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는 오는 16일부터 12월 6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총 20회에 걸쳐 전주시민 400여 명을 대상으로 저탄소 식생활 교육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를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건강도 돌보는 일상 속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

된 것으로,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이론과 실습 교육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채식 식단을 통해 건강을 지키는 식습관 △저탄소 식생활 실천 방법 소개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요리 실습 등이다. 또한, 시는 유치원·초등학교 140여 명을 대상 전주푸드 직매장 견학과 장보기 체험, 음식을 쓰레기 줄이기 실천 교육도 병행하는 등 탄소중립과 지역 먹거리 이용의 중요성을 함께 알리기로 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SNS 활용 우수 지자체 명성 이어가

대한민국 SNS 대상서 기초지자체 부문 ‘최우수상’ 수상

전주시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23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2023 대한민국 SNS 대상’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회장 김진열)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가 후원하는 행사로, 매년 전문가와 일반인 투표를 거쳐 SNS 운영 활동이 우수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통계청,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에서부터 넷마블, 코엑스, KT&G 등의 기업, 전국의 광역지자체

가 참여하는 행사이기에 의미가 크다. 시는 이번 수상으로 ‘대한민국 SNS 대상’에 처음 참가한 지난 2016년부터 7번째 상을 받으며, SNS 활용 우수 지자체의 명성을 꾸준히 이어가게 됐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전주시 공식 인스타그램(@jeonju_city), 페이스북(@jeonju.kr), 블로그(blog.naver.com/jeonju_city) 등 다양한 SNS 채널을 운영해 왔으며, ‘좋아요’, ‘댓글’, ‘조회수’ 등으로 평가하는 SNS 활용 화율이 전주시와 규모가 비슷한 타 지자체 대비 상위권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공공비축미 1980톤 매입 추진

23일~11월 말까지 매입키로

전주시는 오는 23일부터 11월 말까지 2023년산 공공비축미 1,980톤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올해 배정된 매입물량은 지난해보다 106톤 감소한 1,980톤으로 건조포대벼 1,580톤과 산물벼 99톤, 가루쌀 301톤을 매입할 예정이다. 시는 동별 매입량 및 이동 거리 등

을 고려하여 총 4개 권역별로 나눠 매입하고, 매입한 미곡은 전주시 정부양곡관리창고에 분산해 비축할 예정이다.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은 ‘신동진’과 ‘해품’ 등 일반벼 2품종과 가루쌀 ‘바로미2’ 1품종이다. 특히, 시는 올해 최초로 매입하는 가루쌀(바로미2) 매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수분과 타품종 혼입 등

의 검사규격에 대한 사전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되며, 농업인에게는 우선 공공비축미 출하 직후 포대(40kg 조곡 기준)당 3만 원의 중간정산금을 지급한 후 12월 말 최종정산 금액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단, 매입품종이 아닌 벼를 출하할 경

우에는 향후 5년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공공비축미 매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매입품종을 반드시 확인해 공공비축미 품종 외 다른 품종의 벼가 출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김종성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올해 태풍과 폭염 등 자연재해와 농업 경영비 상승의 이중고를 겪으면서도 양질의 벼를 수확한 농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공공비축미를 차질 없이 매입해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K-명승 광한루원

달빛유희 야간관람

다채로운 색으로 물든 달빛아래, 광한루원을 거니는 야간 산책 나들이

2023년 10월10일 - 2024년 1월7일

문화와
미래산업도시
남원



광한루원

전라북도 남원시 요천로 1447 | 063-625-4861